

## 2013.12.11 부산 화명동 아파트 화재

2013.12.12 연합뉴스



화재로 인해 한살배기를 비롯한 어린자녀 3명과 34살의 젊은 어머니가 사망



숨진 홍모씨가 직접 119에 신고, 현관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고 전화를 했는데 도착을 했을때는 이미 사망.



숨진 홍씨가 남편과 통화해 아이를 재운다고 말했는데 잠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불길을 빨리 확인할수 없었을꺼라고 함. 두명의 아이는 엄마와 한명의 아이는 엄마와 떨어져 있어 미처 화재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했을것으로 봄. 뒤늦게 화재 사실을 안 엄마는 아이 둘을 데리고 안방 창문을 넘어 베란다로 대피했다고 하는데, 발견했을때는 아이들을 꼭 안고 사망한 상태라고 합니다.



부산 아파트 화재 원인은 거실 전등 누전때문이라고 소방당국과 경찰이 잠정적인 결론을 내림.

누전으로 불꽃이 튀어 번졌는데 안방에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피해가 커진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아파트 거실 천장에 있었던 형광등 4 개가 들어간 전기판에서 누전으로 불꽃이 튀었고 그로인해 연소물이 바닥에 떨어진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장예진 기자/20131212 YONHAPNEWS  
@yonhap\_graphics(트위터)

현관에 있는 신발장은 많이 타지 않았지만 거실 천장 전등 부근에 집중적으로 탄 흔적이 있었다고 함. 3~4 개월전 숨진 어머니의 남편이 전등을 교체했다고 하는데 안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누전이 된거라고 합니다.

부산 아파트 화재 원인.. 전등누전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것 같아요....

불법주정차가 소방차 진입도 막았던 것도,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도.. 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